

신화1리 갈등조정협의체

I. 갈등의 발생과 심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의 신화1리 주민들은 700여년에 달하는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때 80가구에 200여명이 살던 마을은 지금 60여가구 100여명만 거주하고 있고 마을 곳곳에 ‘집단지주’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원자력 발전소와 발전소로부터 설치되어 마을을 둘러싼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화1리는 1988-2005년 사이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인 한울 원전단지 와 2기는 건설중, 2기는 건설예정 중에 있는 신한울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원전 주변지역이다. 발전소 인근이기 때문에 네 곳의 변전소가 마을 주변에 있고 11기의 송전탑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경향신문 2013. 6. 16일자

1979년 정부가 신화리 북동쪽을 한울 원전 부지로 선정할 당시의 마을 주민들은 원전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을 통해 북면 일원이 큰 도시가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정부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울원전단지가 건설되는 기간 동안 당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마을로 이어진 해안도로는 원전 부지에 편입되면서 사라지고, 대신 마을 중앙을 가로질러 원전 부지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 도로로 마을 사람들의 시내 나가는 대중교통이 생겨나면서 편한 일도 있었지만 마을을 가로질러 생긴 도로로 마을이 양분되고 그 전에는 없었던 30여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 중 7명의 신화리 주민도 희생을 당했다.

또한 신한울 원전 1,2호기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신화리 마을 앞 도로는 원전 건설차량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의 과속 질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살인도로’로 주민들에게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신화리에는 원전에서 출발하여 영주·태백·신태백 변전소로 향하는 송전탑들이 마을 주변에 세워졌다. 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싼 11기의 송전탑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귀가 잘 안들리거나 손발이 저려오는 증세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고, 주민들 일부에게 갑상선암 등 암이 발병하는 이유도 송전탑의 전자파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래된 피해의식 속에서 참고 살던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었다. 첫째, 최근 설치하는 신한울 1, 2호기 원전과 관련된 송전탑을 세울 때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하고 있었다. 특히 밀양시에서 벌어진 송전탑 관련 공공 갈등 사례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권리 주장을 하니 정부, 한전이 무시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더라” 하는 인식도 신화리 주민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게 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동안 원전 안전에 대해 무심했던 신화리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고통과 불안을 주는 마을을 떠나 집단이주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1990년 시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주법)과 ‘지역협력기금법’ 등으로 원전 반경 5킬로미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수백억 원의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나, 원전에서 가장 인접한 신화리는 5킬로미터 내에 포함되는 모든 읍면동과 똑같이 지원받는 것에 더욱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울진신문 2013년 05월 03일자

이에 주민들은 신화1리 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만들고 한국전력(이하 한전) 태백전력소에 전자과와 송전탑 소음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울진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동민들의 애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서울 국회로 찾아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면서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및 이주대책에 대한 조정 해결을 촉구하는 등 민원 제기를 하였다. 주민대책위의 민원을 요약해보면,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킬 것, 신화리 마을을 우선지원할 것, 송전선로 정비사업 실시 계획 승인 취소, 정비사업을 포기 또는 지중화할 것, 원전 전용도로 개설할 것 등 다양하고 주장 중심이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산업부, 한수원, 한전 등 관계기관은 신화1리는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주변지역으로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 범위(원자로 노심으로부터 56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화1리 주민들의 요구는 불가함을 밝혔다.

그후 주민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하며 송전탑 반대 의지를 가진 밀양 주민을 비롯한 타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한전 서울 삼성동 본관 앞에서는 ‘고압송전철탄 및 원자력 발전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고,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기자회견장에 참석하는 등 신화리를 넘어 전국적으로 연대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문제해결을 압박하였다.



2013년 6월 10일 신화리 주민들, 한국전력 본사 앞 시위 장면

토론 질문:

- 1) 위 상황에서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 2) 갈등 당사자인 주민, 산업부, 한전, 한수원, 울진군의 입장과 실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II. 협의체의 구성

주민들은 한전 서울본사 상경시위에서 두 가지 핵심 주장, 집단이주와 그 협의를 위한 5자협의체 구성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한수원,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 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한전, 한수원, 울진군 등 이해관계기관은 신화리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협의하기 위한 주민대표도 참여하는 ‘신화1리 현안문제(집단이주 포함)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라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참여 기관과 참여자는 산업부 원전상생협력팀장, 한수원은 본사 민원 총괄팀장, 한울본부 대외협력실장, 한전은 본사 송전사업팀, 대구 경북지사장, 울진군은 경영전략과장, 그리고 신화1리 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3인이다.

첫 번째 회의 이후 9개월 동안 총 10회 회의를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신화1리 현안문제(집단이주 포함)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진행 내용

	주요내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진행 기본 방향, 회의 개최 시기 등 ● 협의체 운영 방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책위 요구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주 가부 결정, 자료제출 협조 등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집단이주 불가 답변(한수원, 한전) ● 이주 타당성을 위한 피해실태조사 용역 필요성 제기(주민)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용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 내용 ● 단기 대책방안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수원이 주관 - 1개월 내 제안서 작성, 회람 후 결정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검토 ●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용

	- 신화1리 마을의 원전 및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실태 및 영향 조사 명칭, 과업지시서 안 검토
9차	• 피해실태조사 용역 세부내용
10차	• 피해실태조사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 •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필요 확인

그러나 5자협의체를 진행하면서 4차 회의부터는 산업부가 불참하고, 9개월이 되도록 논의 및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낀 주민들은 상경시위 1년을 맞아 관계기관의 해결의지 없음을 성토했다는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1개월간 한울본부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집단이주’ 요구 의지를 표현하였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토론 질문:

- 1) 5자 협의체가 구성되고 9개월이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논의 및 진행이 지지부진하였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제3의 중립자를 활용한 조정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II. 합의형성 절차

9개월 간 지속된 5자협의체의 논의를 통해서도 갈등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수원과 한전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게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맺고 있던 ‘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수원과 한전과 같이 갈등관리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를 연계 지원해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세명의 중립적인 민간 갈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주민들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 전문가 개입을 통한 조정 제안에 대해, 그동안 열렸던 5자협의체에서 산업부, 한전, 한수원, 울진군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때문에 국민대통합위원회조차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정과정이 각 기관들의 시간끌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였으며, 낯설은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왕 시작하는 과정이므로 3개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듣고 파악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반신반의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3개월 동안의 조정 절차 이후에도 만족스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5자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주민피해 조사 용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1) 주민 대상 조정 절차 설명회

조정팀은 먼저 주민들에게 생소한 조정 절차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조정팀을 소개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에서 조정팀은 갈등조정팀의 역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갈등조정팀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갈등조정팀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립성입니다. 갈등조정팀은 이해당사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며 당사자들이 협력적으로 대화하도록 돕습니다.
- 갈등조정팀은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해 신화리 주민들의 민원의 핵심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 또는 해결과정을 설계합니다.
- 갈등조정팀은 당사자회의에서 당사자들이 안전하면서도 원활히 이야기하고 들으

며, 문제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안내합니다.

- 갈등조정팀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릅니다.
- 갈등조정팀은 면담이나 회의 등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직접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 갈등조정팀을 중심으로 당사자 대화 모임이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3개월 간의 합의형성과정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이해관계자 개별면담을 통한 이해관계의 파악 (0.5개월)
 -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
 -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영향
 - 문제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 해결방법
 - 합의형성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의제
- 개별면담 내용에 따른 조정팀의 합의형성과정 절차 설계 제안 (0.5개월)
 - 참여자의 범위
 - 회의 횟수, 시간, 장소
 - 주요 안건 및 쟁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규칙(안)
- 이해관계자 개별면담을 통한 합의형성과정 절차에 대한 합의
- 합의형성 과정 절차의 진행과 합의안 도출 (2개월)

2) 이해관계자 개별 면담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이해관계인 면담을 시작하였는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들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29명을 면담하였고, 울진군 관계자는 2회에 걸쳐 6명을 면담하였다. 한수원 본사는 2회에 걸쳐 4명, 한울본부는 2회에 걸쳐 4명을 면담하였고, 한전은 본사 1회 4명, 대구경북지사 1회 3명을 면담하였다.

3) 개별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형성절차 설계

조정팀은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인식과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형성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p>1. 이해관계인 공통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전체적으로 인정함.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가장 인접 지역에 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 개인의 조망권, 재산권 등의 피해, 현행법이 인접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함. ○ 집단이주를 주장하게 하는 근본 이유는 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 도로 양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우려(교통사고, 소음 등), 송전탑 소음 및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임. ○ 집단이주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의 인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근거 마련할 수 있지만, 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주민의 실질적,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이해, 인정함.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화리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함. ○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 인정함. <p>2. 차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으로서 집단이주 가능 여부 ○ 지원방법(재원)과 주체 ○ 지원 규모 <p>3.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전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의 동의: 집단이주 요구의 이유인 ‘신화리 주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초점 맞추기 ○ 각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와 요구의 공통분모 찾기 ○ 각 주체들 내부의 의견일치 및 소통문제 ○ 각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 주체로서의 책임 인식과 참여 의지 ○ 신화리 지원 법적 관행적 근거 방법 찾기(사회적 수용성) ○ 대안 의사결정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p>4. 조정협의체 계획안</p> <p>(1) 협의체의 목적, 범위, 및 권한, 주요 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의 이름은 가칭 ‘신화리 갈등 조정회의’로 할 수 있음. ○ 협의체의 목적은 신화리 주민의 안전과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합의 형성임. ○ 주요 의제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신화리 주민의 안전과 안정된 삶의 질 향상 방안임 <p>(2) 협의체의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차</td> <td>2차</td> <td>3차</td> <td>4차</td> <td>5차</td> <td>6차</td> </tr> </table>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8월 20일(수)	8월 27일(수)	9월 2일(화)	9월 16일(화)	9월 23일(화)	9월 30일(화)
-----------	-----------	----------	-----------	-----------	-----------

○ 매주 1회. 2시~6시를 기본으로 함. 의제에 따라 참가자 동의 아래 시간은 늘일 수 있음.
○ 장소는 신화리 마을회관, 한울본부, 군청 등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음.

4) 문제해결 절차 설계(안) 회람 및 동의

조정팀은 각 당사자별로 면담을 통해 정리한 내용과 합의형성절차 설계안을 면담 당사자들에게 회람하면서 면담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역할로서의 조정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다.

5) 신화1리 갈등조정회의 운영

8월 2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정회의를 시작하였다. 첫 회의에서 모임의 명칭을 ‘신화1리 현안(집단지주 포함) 갈등조정회의’로 정하였다. 회의록은 매회 회의가 끝날 때 논의된 내용,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회의록을 당일 정리하고 당일 확인함으로써 논의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 쟁점과 의제를 하나씩 정리해나감으로써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원래 9월 말까지 마치기로 한 기간을 참여자들의 동의 아래 중간에 연장하여 11월 21일까지 총 12회차 회의를 진행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었다.

갈등조정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화1리 갈등조정회의 회차별 주요내용

	일시	장소	주요내용
1차	8.20	신화1리 마을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절차 소개 및 기대나누기 • 기본규칙 합의
2차	8.27	한울본부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대표인정동의서 취합 • 이해관계자간 신뢰형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농비 지급 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 한울원전 내 정비공사 개요 확인
3차	9.2	한울본부 본관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고통과 어려움 해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주 불가 이유 확인 -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아이디어 모으기 • 현행법상 집단이주 불가하다면 가능한 방법과 근거 찾기와 주민들 불편과 고통, 불안 해소 방법 찾기를 분리 논의 결정

4차	9.16	(울진) 민간환경 감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모으기 · 안전, 생활기반(안정) 기타 불편해소방안으로 나눔
5차	9.23	한울본부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한 방안 논의 · 전자파 생태학적 역학조사, 소음측정 후 대책 마련에 대해 합의 (한진 계획안 마련 후 주민들의 선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방사능 방재 용품 비치: 울진군 계획 제시하기로 함 · 도로안전 확보 아이디어 모으기 • 조정회의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6차	9.30	신화1리 마을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개선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안전을 위한 방안 합의 · 10월중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울진군) · 전자계 생태학적 역학조사, 소음측정하기로 함. ·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는 울진군과 한수원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함. •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는 향후 주거환경, 생활환경, 소득 증대 방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함
7차	10.10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팀이 신화1리 피해실태 현황을 정리하기로 함 • 주거, 생활환경, 소득증대 방안 등 논의
8차	10.17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측정 기관 논의 • 차기회의에서 방사능 감지기 지원 방안 제시 • 전자계/방사능 생태학적 역학조사는 이후 재논의
9차	10.29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일정 확정기로 함 • 방사능 감지기 제공 관련 한수원 입장 제안기로 함 • (안전문제) 신한울 3,4호기 착공 전 한수원 전용도로를 건설하기로 함
10차	11.7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등 논의
11차	11.13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의(안) 세부 논의.
12차	11.21	한울본부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의안 승인 및 서명, 언론홍보자료 검토



▲ 2014. 8. 20 신화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조정회의 장면

토론 질문:

- 1) 9개월의 5자 협의체와 5개월 동안의 신화1리 갈등조정회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조정팀이 중립적으로 인식되고 신뢰를 얻은 배경은 무엇인가?
- 3) 신화1리 갈등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IV. 합의안

신화1리 갈등조정회의의 12차 회의에서 마침에 다음과 같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신화1리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현행 법률로는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자력 발전 및 송변전시설로 인해 신화1리 마을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 및 불안요소를 해결하도록 산업부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관련 법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둘째, 신화1리 마을 관통도로의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수원은 공사용 대형덤프트럭과 한울본부 직원 차량의 통행량과 과속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우회도로를 우선하여 건설함으로써 공사용 차량과 직원 차량을 우회토록 하며, 대책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 때 내부공사용 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확인하기로 하였다. 울진군은 새로 개설되는 공사용 도로가 20번 군도에 연결되어 군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울진군, 군의회, 대책위가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셋째, 신화1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은 지원을 노력한다. 송전탑을 신설할 경우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주민들의 원전 관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감지기 설치 등을 향후 한수원과 울진군, 대책위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고, 송전탑 소음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이내로 소음 측정 용역을 시행하고 저감대책을 찾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들 중 건강검진을 원하는 경우 희망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해관계기관의 이행 약속 및 검토를 위한 사항으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중장기적 이행 과제에 대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5자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질문:

- 1) 갈등 조정 합의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들은 무엇인가?
- 2) 1)에서 논의된 평가 기준들을 고려하여서 합의안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